

도, 우수 축제 육성 '축제도시로 도약'

지역 대표축제 38개 최종 선정·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 올해 축제 관광객 200만명 목표로 진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역 대표성을 지닌 우수한 축제 육성을 통해 축제의 브랜드(상표화)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023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경쟁력 있는 축제 3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축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조직역량,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 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10개를 선정했다.

2023년 시군 대표축제 14개는 △대표축제 - 임실(치즈축제, 무주(원도불축제) △최우수축제 - 군산(비거행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안(홍삼축제, 장수(한우랑(파랑축제, 순창(장류축제 △우수축제 - 익산(서동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고창(보양성제, 부안(마실축제 △유망축제 - 전주(비발산축제, 남원(홍부제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디지털 전환 친환경, 안전관리 등 어느 때 보다 축제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광환경과 축제에 대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기존과 차별화된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축제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지정 축제에 도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축제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우수축제 벤처마칭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축제 기획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지원해 축제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 계획이다.

도는 올해 축제관광객 200만명을 목

표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이색적인 축제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산비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즐길거리, 볼거리 가득한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3년 축제로 뜨거워질 전북에서 4개월 내내 새롭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2년 시군 대표축제 방문객만 120만 명이 공식 집계됐다.

/김재훈 기자

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전국 1위'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사업성과 우수기관 선정 맞춤형 홍보·찾아가는 문화장터 활성화 등 '주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고 지역 주관처인 (재)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사업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낸 통합문화이용권 일선 공무원 8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도지사상을 수상했다.(장관상 3명·남원 김차숙, 정읍 전화숙, 김제 박진숙/도지사상 5명·익산 윤중현, 무주 홍의환, 장수 박유진, 임실 김진, 부안 김선희)

대비 이용률은 전국평균 78.15% 전북은 83.2%로 1위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률도 전국평균 88.21% 대비 전북은 91.33%로 1위다.

14개 시군 중 사업실적적인 좋은 시군은 부안, 김제, 무주, 남원 순으로, 부안 이용률 90.38%(1위), 김제 이용률 88.92%(2위), 무주 이용률 88.69%(3위)를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전년도 이용현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선호가맹점 정보를 파악하고 맞춤형 홍보에 나선 결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제도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에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17개 시도 예산

카드발급 독려 및 가맹점이 적은 시군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문화장터 활성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점도 주효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카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게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열정도 빛나는 평가다.

/김재훈기자

전북도 수출지원 온·오프라인 시책설명회 개최

도내 6개 수출지원기관 참여...수출기업·수출지원시책설명·질의응답 시간 가져



올해 첫 전북도 수출지원 시책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는 11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코트라전북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등 도내 6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2023년 수출지원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설명회에는 200여 명의 수출기업 임직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기관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수출기업의 해외관료 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0억원을 투입해 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

출상담회,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수출보험 가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수출기업이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에 해소를 위해 수출통합지원센터에서 통상전문가 컨설팅, 찾아가는 수출컨설팅, 수출상담지원서비스, 수출정보 통합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매년 수출 성적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게 수출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책설명회 자료 및 수출지원사업에 관한 정보는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t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모 선정

전주 신중양시장 등 16곳 선정·국비 11.6억원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에 도내 전통시장 등 16곳이 선정돼 국비 11.6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신중양시장은 지역 문화 관광 지원을 연계해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시장으로 선정돼 올해 사업비 2.6억원, 익산 구시장은 특성화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사업비 2.3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익산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유도할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1.8억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조기 발화요인 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전주시 동문상점가, 지역민영방송 지원과 시장경쟁력제기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 등 13곳이 선정돼 총 6.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최대 6.4% 세제 혜택

전북도는 11일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며 많은 도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다.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6.41%, 3월, 6월, 9월에는 각각 5.3%, 3.5%,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준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와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도, 설 맞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20일까지 터미널·전통시장 등 92곳 점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설을 맞아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터미널 등 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3개소, 전통시장 59개소 등 92개소이다.

이 중 도에서는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82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의 건축사, 안전관리자, 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설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하는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중국사무소 '2022 중국통' 발간

전북도 중국사무소는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수많은 뉴스 중 시의성과 중요도가 높은 뉴스를 모아 '2022 중국통'이라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전라북도 공무원 중국사무소 전문관과 유학생 등에 제공했다.

중국사무소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도내기업 통상지원, 전라북도 문화·관광 및 도정 홍보, 중국 유학생 유치 및 전북 도민회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 내 주

요소식을 모아 매주 중국통을 제작·배포해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의 추천사로 시작하는 이번 '2022 중국통(비매품)'은 지난해 발행된 총 44호의 주간 중국통에서 다시 한번 실패없이 하는 뉴스 102건과, 장수성·상하이시·산둥성·완안성 등 전북도 지매·우호도시 기본 현황,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김재훈 기자

모집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장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의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